

3월 넷째 주 가정예배

찬 양 ||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2.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3.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맘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4.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후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공동기도문 || 다 함 께

- ✚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소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소서.
- ✚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소서. 아울러 우리 인간이 저지른 교만한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가운데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과, 헌신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 ✚ 이로 인하여 온 나라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상황을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위정자들이 당리당락과 사욕과 정쟁을 버리고, 이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을 위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개개인의 생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 전반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전염병에 피해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 특히 이번 기회가 이단들의 폐해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저들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전염병을 멈춰주시고, 확진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 하나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일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시고, 지혜로 난국을 헤쳐 나가게 하옵소서.

✚ 이런 국가적 재난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힘쓰고,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어서 속히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를 경계하게 하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일꾼 되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 다 함 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신약 p.30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설 교 ॥ 가족대표

“십자가의 죽음”

중학교 때, 매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공들여 풀고 나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풀어 주시는 것은 보는 것과 내가 직접 푸는 것의 기쁨은 아주 다릅니다. 스스로 풀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풀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많이 듣고 배운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누구보다 깊게 경험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길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죄인인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내 죄도 죽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일을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어 숙소에 들어갔을 때, 영의 눈이 밝아져서 동행하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눅 24:31)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저 하늘 보좌에 안자 계신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때, 비로소 영의 눈이 떠져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주 기 도 문 ॥ 다 함 께